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0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3.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거룩하신 하나님, 조석으로 부는 찬바람이 우리의 느른한 일상을 꾸짖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너무도 굳어져 세상의 아픔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억압과 착취와 성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땀흘리고 계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못난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난 참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을 생의 활력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늘거리는 길가의 코스모스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령에 몸을 맡긴 채 춤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	-----

♠ 교 독 문	28. 시편127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II. 장영숙 전도사
------------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323. 주께로 한 걸음씩	다함께
-----------	----------------------	-----

성경봉독	I.	II. 요한3서1:1-4	김금순 집사
------------	----------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김재흥 목사
	II. 축복	김기석 목사

성 찬 식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놓인 걸림돌은 치워주고,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 주기 위해 마음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함 께 : 아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홀로 잘 살기보다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열기 위해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임수연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박범희 집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범희	이순정	고숙이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김인걸	김용진	최영혜	장혜숙	박홍재

화해하는 마음을 갖고 투쟁하는 길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여, 진정 소박한 생활 안에서 화해하는 마음을 갖고 투쟁할 자세를 갖추십시오.

당신이 선 그 자리에서 압박받는 이들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무릇 정의 구현이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구체적 유대를 갖는 삶을 요구합니다. 정의라는 말만 가지고는 싸구려 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괴롭더라도 당신 자신과 싸워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각오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전 생애가 이같이 일관된 자세로 이루어질 때 당신 안에 모든 것을 꿰뚫고 나갈 내적 통일성이 이뤄집니다.

화해하는 마음을 갖고 투쟁한다는 것은 대단한 긴장 한가운데서 버티고 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투쟁은 당신의 정력을 질식시켜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활기찬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향하는 바는 어쩌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화해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비심을 잃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김이 스민 공동체 안에서 남들과 함께 할 때에, 불모의 세계가 공동 창조로 바꾸는 변화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가 친교의 모임 속에서 화해의 누룩이 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죽 속에 누룩이 되기를 힘쓰며, 교회를 사랑하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산산조각내는 내부 분열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화해를 도모하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무너뜨리기보다는 세우는 것을 바랄 것이며, 상대방을 훈계하기보다는 이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 버티고 남아서 교회의 약점이 변모되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행동을 약화시키는 분열과 경쟁 의식에 부딪칠 때 가장 요긴한 일은

먼저 나서서 서로를 찾아보고,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빠스카(유월절) 신비를 함께 거행하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일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해야겠다는 본능적 반응으로 선수를 쳐서 상대방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복음과는 거리가 먼 양심에 거리낄 수단도 불사할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에 힘쓰십시오. 마음이 기울면 지성은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일시적인 정열을 사를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의 생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나날이 하나님과 함께 이룩하는 창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깊이 들어갈수록 현실 세계도 그만큼 깊어갈 것입니다.

--로제 드 떼제, <<하나님께 바친 삶>> 중에서

우주의 한 알 먼지

숨을 죽이고 웅장한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같은 키를 가진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대하고 친절하고
수많은 재능을 가진 뛰어난 인간인데
남들이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웅장한 자연 앞에
저는 그저 우주의 한 알 먼지일 뿐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신 당신 앞에
저는 오직 작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김현옥, <<그대를 찾아나서면>> 중에서

■ 마/음/으/로/워/는/글

이기고자 함

공수는 아무 것도 걸지 않고 활을 쏠 때에,
기술을 한껏 발휘한다.
늦쇠로 된 허리띠 고리를 걸고 쏠 대면
이미 긴장해 있다.
황금을 상으로 받기 위해 쏠 때는
눈이 흐려진다.
곧 과녁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이니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기교(技巧)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賞)이 그를 나누어 버린다.
그는 근심한다.
쏘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더욱 마음을 쓴다.
그래서 이기고자 함이
그의 힘을 잃게 한다.

(토마스 머튼, <<장자의 길>>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당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권호천 배상순 손백묘 현박성수
 김애경 서원영 김윤미 김미경 완수진 이정규 이인성 배인재 송웅희 원민영 박수준
 정복순 권미영 김김순 김복정 김민정 김이준 김종미 권이성 김재흥 백임희 최희영 박임준
 우순덕 권미숙 김인인 정복정 김민정 김이준 김종미 권이성 김재흥 백임희 최희영 박임준

월정헌금:

고속이 권미정 김명순 김미순 김영순 김정섭 김극 배부레 박석희
 박어진 박옥순 이재구 황선희 정두리 김지현 김지은 조항범 오현정
 이은자 정미경 김수연

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이인섭 박범희 김은영 박병구 김인정
 박숙현 허경기 제2여선교회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병희 최문희

캄보디아우물헌금: 방문성 박혜경 하은주 홍순구 안홍숙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준우 김재흥 최희영 장영숙 이인웅 김중수 이순정 김인걸 가족
 (누계-119,43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시간은 동호회를 위해 비워둔 시간입니다. 귀한 사권의 시간입니다.
2. **지방 집회** : 중구용산지방 사회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집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립니다.
3. **신앙강좌** : 다음 주 오후 집회는 미국 북 일리노이 연회의 정희수 감독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4. **나들이** :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원들이 17일(수) 물향기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떠납니다. 9시에 떠납니다.
5. **독서모임** : 독서 모임이 지난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신앙실천** : 15일은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고, 17일은 산의 날입니다. 생명의 밥상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 가까운 산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고요한 걷기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식당 봉사 :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